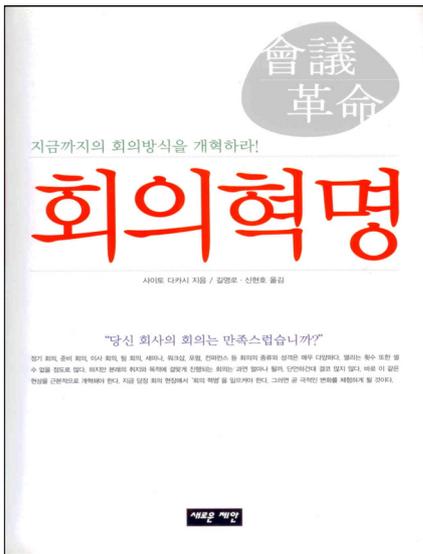


회의혁명



- 지 은 이 : 사이토 다카시
- 옮긴이 : 길영로 · 신현호
- 발행연도 : 2004
- 출 판 사 : 새로운 제안

‘회의혁명’은 별다른 결론 없이 늘 보고와 지루함으로 가득 차 있는 회의문화를 그야말로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저자는 회의의 능률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을 10가지 회의혁명법칙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회의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새로운 형태의 회의방식 3가지를 주장한다. 먼저 10가지 회의

혁명법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의를 통해 창조적인 결론에 도달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를 내세우기보다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주관과 객관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회의의 경제성을 높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회의를 마칠 때는 반드시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결정한 다음 끝내야 한다.

둘째, 회의참여자의 두뇌활용을 극대화하여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테마를 설정하고 회의를 활성화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회의리더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또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두뇌와 타인의 두뇌가 교류할 수 있는 공통의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신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하라는 것이다. 회의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며 마치 스포츠처럼 신체자각을 통해 참여자 전원의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 참여자들이 집중력이 떨어져 회의의 목표를 놓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시도해 보면 좋을 구체적인 회의방법은 포지셔닝, 키워드시트, 매핑 커뮤니케이션이다. 포지셔닝은 신체의 특성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이 극대화될 수 있게 직각이등변 삼각

형으로 좌석배치를 하는 것이다. 키워드 시트는 상대방의 두뇌를 들여다 볼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통의 토양 위에 참여자 각자의 의견을 정착시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면 마지막으로 매핑 커뮤니케이션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매핑 커뮤니케이션은 카오스와 코스모스를 왕복하며 창조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

회의문화를 개혁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저자는 여러 번 회의리더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장기간의 회의를 거쳤음에도 결과적으로 별다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회의리더의 책임이라고 단언한다. 회의리더는 회의주제 설정, 자리배치, 참여인원, 시간조정, 문서공유 등 회의와 관련된 모든 면에서 세심하게 고민하고 참여자들을 배려해야 한다.

너무 익숙한 나머지 기존의 회의문화가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의문화를 개혁하고 싶은 사람들, 특히 축구팬이라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저자의 축구이야기에 지루하지는 않을 것 같다. 보고서 회의에 익숙하고 회의관련 업무에 녹초가 되곤 하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게는 공감할 부분이 많아 권할 만하다. 회의문화는 회의리더가 좌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대적으로 관리자급 이상의 조직구성원들이 읽어야 실제로 회의문화를 개혁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흠이라면 일본어 번역책 답지 않게 삽화가 조금 유치하다는 점이다.

김귀영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목 차 소 개

| | |
|-------------------------------------------|-------------------------|
| <여러분 회사의 회의는 만족스럽습니까?> 체크리스트 | 법칙7 화이트보드를 마련한다 |
| 시작하면서 | 법칙8 스포츠 감각으로 임한다 |
| 글을 옮기며 | 법칙9 전원의 얼굴이 보이는 위치에 앉는다 |
| 프롤로그 - 회의혁명이란? | 법칙10 무언가를 정한 뒤에 회의를 마친다 |
| 제1부 회의혁명을 일으키는 10가지 법칙 | 제2부 회의혁명 |
| 법칙1 무조건 아이디어부터 제출한다 | 제1혁명 포지셔닝 |
| 법칙2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테마를 설정한다 | 제2혁명 키워드 시트 |
| 법칙3 3색으로 나누어 듣고 말한다 | 제3혁명 매핑 커뮤니케이션 |
| 법칙4 인스파이어 아이템을 발굴한다 | |
| 법칙5 신체의 모드를 바꾼다 | 마치면서 |
| 법칙6 다른 사람의 두뇌를 사용한다 | |